

# 이득 없는 심야약국 ‘허탈’…운영 지원금 처방도 ‘허사’

## ☕ ‘한밤의 119’ 공공심야약국 <중> 전남 지역 참여 저조 왜?

고령층이 많은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필수 의료 시설로 자리잡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지만 지급 수단, 심야 운영으로 보는 수익성 등을 감안하면 이익은 전무하다는 게 약사를 얘기다.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셈인데 누가 나서서 하겠냐는 것이다.

◇전남 11개 시·군은 밤에 문 여는 약국 없어=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시행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운영중인 곳은 총 22개 시·군 중 11곳(약국 점포 수 12곳)에 불과하다.

2021년 순천과 목포에서 전남1호 공공심야약국을 시작해 2022년 1곳(여수), 2023년 4곳(나주·고흥·영암·무안), 2024년 2곳(광양·신안)씩 참가 약국이 늘었다. 올해는 구례에서 2개 약국이 신규 참여하고 보성에서도 1곳이 새로 공공심야약국이 됐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인 11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화순, 강진, 해남, 장흥, 진도, 담양, 곡성, 함평, 영광, 완도, 장성 등이다. 이들 지역민들은 밤중에 급하게 약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수십 km를 달려 타 지역을 들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 보건소에서는 “자원하는 약사가 없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면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범위 중 3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365일 연중 무휴에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약사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전남도 등에서 주는 지원금은 한 시간당 4만원 수준으로, 하루 3시간 근무에 12만원이 자 한달이면 360만원의 인건비가 나오는 셈이지만 연중무휴 일하는 것에 비하면 수익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지자체 지원금 주지만

운영 시간 대비 수익성은 낮아

연중무휴에 야간 근무로 기피

미운영 지역 주민 수십km 원정도

순천선 운영 한 달여 만에 취소

전남 운영 약국 확대 대책 필요

대다수 군 단위 약국은 약사 혼자 근무하는 1인 약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하루 15~16시간씩 일해야 하며, 명절에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 달 정도 심야약국을 운영하다 포기한 순천지역 한 약사는 “연중무휴로 하루종일 일해야 하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개인 생활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영암에서만 18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약국이라도 더 버티고 있어야 하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마음 아니면 힘들다”고 했다. 그는 “늦은 밤 해남, 장흥, 강진에서도 영암 약국을 찾아오는데,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돈 번다는 생각으로는 할 일이 못된다”고 말했다.

완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군 자체적으로 당번제 심야 약국을 운영 중이다. 약국 8곳이 밤 8시부터 10시까지 돌아가면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하루에 10만원씩 군비로 수당을 지원받는 형태다.

하루 평균 20여명이 찾는 다른 심야약국과 달리 완도에서는 하루 3~4명이 찾는 수준이다.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영 사실 자체를 모르는 지역민이 영암까지 약을 구입하러 ‘원정’을 떠

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상비약, 응급실 있으면 필요없다고?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하지 않는 논리로 “응급실과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굳이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장, 강진보건소 관계자는 “강진의료원이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면 응급실에 가면 된다”고 했다. “감기약과 두통약 등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팔아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이 떨어진다”고도 설명했다.

화순군과 진도군, 장성군 보건소도 화순전남대 병원, 고려병원, 성심병원, 진도 한국병원, 장성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이 근처에 있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실을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야 약국을 이용해 본 지역민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제한적이고, 고령층이 많은 시골의 경우 구입하려는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어 필요한 약을 찾기도, 사기도 힘들다는 지역민들이 많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총 11종으로 해열진통제 3종과 감기약·소화제 4종 등을 판매 중인데, 지자체·화상연구·인공눈물 등 판매하지 않는 품목이 많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지 않은 편의점도 있어 상비약 자체를 볼 수 없는 편의점도 적지 않다.

응급실도 통상 주사나 링거 치료비로 10만원이 넘고 약국도 따로 없어 약 처방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여수에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는 “응급실에 가면 기본적으로 1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나오지만, 약국에서는 약사가 주는 지사제, 유산균 등 1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긴급 상황을 넘길 수 있다”며 “갑자기 알려지자 발생, 편의점에 가서 무슨 약을 어떻게 사느냐. 장염인지 단순 배가 아픈 것인지 어떻게 알고 맞는 약을 고르겠냐”고 했다. 불필요하다는 입장 대신, 어떻게 하면 운영할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해 식당 직원과 인근 편의점 방문객 등 14명이 긴급 대피했다. <광주서부소방 제공>

## 식당 화재로 14명 긴급 대피…인명피해 없어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긴급 대피했다.

30일 광주서부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11시 20분께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인근 건물과 편의점, 식당 내 인원을 포함해 총 14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

었다.

다만 천장에 있던 에어컨과 석고보드 등이 타 소

방 추산 총 1932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식당 천장형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천장 석고보드 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광주지검, 을 상반기 마약사범 30여명 검거

검찰이 을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마약사범 30여명을 검거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마약사범 총 30명을 마약류관리예관합법을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17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3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아바,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억 55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광주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 302g g 등을 소지하고 유흥주점 종업원, 손님 등에게 케타민 58g g (1171만원 상당)을 판매한 공 급책 A(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마약 판매를 도운 유통책과 투약자 등 19

명을 차례로 입건해 기소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세관 등과 공조해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태국발 아바 1만 17정, 필로폰 310g 등을 과자·영양제로 속여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27)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태국, 독일 등지에서 아바 481정, 케타민 494g 등을 밀수하려 한 불법체류자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항공특송화물로 케타민 92g을 방부제로 위장해 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추가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 조직은 마약류를 금고에 넣어 두고 고급 술집 등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공급하며 이득을 추하고 있었다”며 “광주·전남을 마약 청정 지역으로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전남 건설기계노동자들 5일 총파업 예고

## “고용 악화·체불 증가로 생존권 위협” 대책 마련 촉구

광주·전남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여름철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중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고용악화, 약성체불 증가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오는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된 점, 현장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과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등 문제가 해결되

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광주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광주시가 최소한의 분담금마저 납부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비 예산 전액삭감으로 사업자체가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며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사태를 이지경에 이르게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들에 사과하고 지역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이 판을 치고,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장 제도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가입이 관리·감독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저당가와 약성체불로 고스란히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수개월째 하루도 일하지 못해 장비가 녹슬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고도 건설기 임대료 체불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장비를 빼앗길 처지의 노동자도 다수다”며 “광주시가 답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해 광주시청 광장에서 건설기계 노동자 1000여명과 덤프·레미콘·펌프차·굴삭기·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 500여대를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